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

반 혜 성*

국문초록

본고는 손승용(孫承鏞, 1855~1928)의 유품에서 나온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분석한 글이다. 창가집을 분석하기에 앞서 손승용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본 결과, 손승용이 독립신문사의 기자를 지낸 후 감리교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도 이바지하였던 인물임을 밝힐 수 있었다. 손승용은 언론인이면서 교육자, 그리고 종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다음으로 수록곡을 통해 필사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필사가 시작된 시기는 손승용이 강화의 잠두합일학교에 있었던 1909년경이고, 완성된 시기는 공주제일교회에 있었던 1911년경으로 보았다. 수록곡에는 문명개화를 통해 국권을 지키고자 한 시대 정서가 노랫말에 투사되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애국창가집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일제의 강제병합 직전부터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불렀던 창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외에 악보가 있는 애국창가집으로 전하고 있는 북간도 광성중학교의 『최신창가집(부악전)』(1914)과 하와이 호놀룰루의 『애국창가』(1916)의 저본으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비록 개인이 필사한 것이지만 국권 피탈의 과정을 바라보며 우려나는 애국심과 독립의 염원을 기록한 시대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라고 평가하겠다.

[주제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 손승용, 창가, 애국창가, 독립신문사, 감리교, 이동휘, 영화학교, 잠두합일학교, 『최신창가집(부악전)』, 『애국창가』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 |
| Ⅱ. 손승용의 생애 | Ⅳ. 맺음말 |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flasung@nate.com

I. 머리말

본고는 애국 계몽기에 민족교육가로 활동한 손승용(孫承鏞, 1855~1928)의 유품에서 나온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을 고찰하는 글이다. 이 창가집은 손승용이 생전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학생을 가르칠 때 사용하였던 수첩으로 50편 이상의 창가를 수록하고 있다.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수첩에 기록된 창가는 손승용이 직접 필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수첩을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라 칭하며, 이를 분석하여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¹⁾

손승용과 그가 남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인천 영화여자정보학교의 교사였던 이성진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²⁾ 이후 손승용의 활동상이 알려지면서 창가집의 필사자는 “영화학교의 터전을 다진 목사 손승용”으로 밝혀졌고, 2006년에 인천시가 선정한 ‘인천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손승용이 선정되기도 했다.³⁾ 하지만 손승용의 생애 전반과 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나 창가집의 서지적 연구조차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손승용과 관련된 유물들과 여타 자료를 중심으로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의 근대 음악사적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은 필사자나 소장자, 작사자, 혹은 필사 시기 같은 서지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를 밝힐 만한 다른 자료도 발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록 악곡들을 주목하여 필사 시기 등 서지적 정보들을 정리하여 창가집의 구성 경위를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수록곡들의 수록 체계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 창가집에서 전달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북간도 광성중학교에서 간행된 『최신창가집(부악전)』(1914)⁴⁾과 하와이 호놀룰루의 등사본 창가집인 『애국창가』(1916)⁵⁾와의 비교를 통해 동시대에 간행된 해외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도 추론해 볼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이 글의 목적을 둔다.

- 1) 현재 손승용의 유품으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 이외에 사진 8장, 벼루, 안경 그리고 『강희자전』(康熙字典) 등이 있다. 이외의 유품은 손승용의 아들 손대벽(孫大闢)이 한국전쟁 당시 우익으로 고초를 당하고 난 후 모두 태워 버렸다고 한다. 손승용과 관련된 여러 정보와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원본, 그리고 기타 유품을 제공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 손승용의 손자 손동욱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2) 1892년 영화여학당에서 시작된 영화여자정보학교는 2020년 학교와 학교명을 변경하여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교사였던 이성진이 인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손승용과 그가 남긴 창가집을 처음 발굴하였다. 이후 옥성득 교수(UCLA 한국기독교학), 이은용 소장(강화 기독교 역사연구소), 정진오(인천시청 대변인) 전 경인일보 기자와 고 노동은 교수에게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복사본을 제공하여 이 창가집에 대한 존재가 알려졌다. 논문 작성의 과정에서 기독교 계통의 문헌을 특별히 제공해 주신 현 인천 골목 문화 지킴이 이성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3) 『경인일보』, 2016년 6월 23일 기사: 경인 일보 특별 취재팀, 『인천 인물 100인』, 다인아트, 2009, 536~539쪽.
- 4) 길림성 연길의 소영자에 설립한 민족학교인 광성중학교에서 프린트본으로 만들어졌던 『最新 唱歌集 附 樂典』은 국가보훈처에서 1996년에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XVII) 일본 篇④』에 실려있다.
- 5) 자료번호 3-008961-000, 가로(15cm), 세로(22.8cm), 면수(67). 이 창가집은 현재 등록문화재 제475호로 지정되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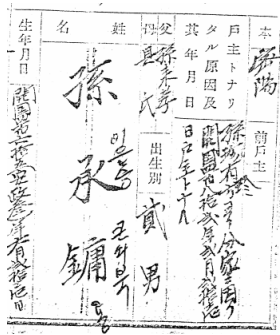
Ⅱ. 손승용의 생애

여기서는 손승용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그가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상경하여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사에서 활동했던 시기를 서술하고 다음으로, 신문사 퇴사 후 목회와 교육 활동에 주력하였던 시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독립협회·독립신문사에서의 활동 시기

손승용은 1855년 6월 21일(음력)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면 서문리(현 서내동)에서 부친 손내효(孫來孝)와 모친 구씨(具氏)의 차남으로 출생하였고, 1928년 7월 26일(음력) 전라남도 함평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우선 아래에 손승용의 생전 모습과 호적 일부를 소개한다.

〈표 1〉 손승용의 모습과 호적

손승용의 생전 모습		손승용의 호적 일부
		
정동 제일교회(1910)	연대 미상(은퇴 이후로 추정)	1990.03.16. 발행본

손승용의 첫 사회적 활동은 1895년부터 1896년까지 홍주부(洪州府)의 사판위원(查辦委員)을 지냈다는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⁶⁾ 사판위원은 갑오개혁 시 전국의 역둔토(驛屯土)를 일괄 조사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관원을 말하는데, 관제 개혁 이후의 주임관급 관원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지주제의 강화와 국유지의 소유권을 재확인하여 결세(結稅)를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⁷⁾ 손승용은

6) 문서번호 指令 藍浦郡守 鄭寅夏 第二號(발송일: 建陽二年一月二十九日, 수신자: 藍浦郡守 鄭寅夏,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문서번호 訓令 洪州府觀察使 五百七十一號(발송일: 建陽元年三月十九日, 수신자: 洪州府觀察使, 결재자: 大臣 協辦未差農務局長) 홍주부는 1895년 칙령 제98호로 개정된 지방 제도 23부 중 하나로, 현재의 충남 당진, 아산, 서천, 태안 일대의 서해안지역이다.

손승용은 1900년 4월 정동 제일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에게 학습예식을 행하고, 9월에 세례를 받고 입교 예식을 하여 기독교인이 된다.¹⁷⁾ 정동 제일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아펜젤러는 윤치호가 독립신문사를 그만둔 뒤 『독립신문』의 주필을 맡았던 인물이다. 손승용이 기독교인이 된 데는 아펜젤러의 영향이 커 보인다.

〈표 4〉의 기사에 의하면, 손승용은 세례를 받은 후 인천교회(제물포교회)와 황해도 연안교회, 강화교회(잠두교회), 수원교회(종로교회), 서울 서강교회에 파송되어 전도사나 목사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충남 공주 지역의 순행 목사로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감리교 신학회(협성신학교 전신)에서 학습하고, 선교연회에 입회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특히 강화교회에 파송된 후 8곳에 700명 신도 정도였던 교세를 35곳에 3,500명 신도의 규모로 확장 시켰다는 공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손승용은 주로 서울·경기·충남지역에서 순회하며 교회 사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가 교회 사역에 투신할 무렵 잠두교회에 남녀합일학교를 창립하고 수원읍교회에서도 남녀학교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감리교 목사의 별세 기사에서 학교를 설립한 사실이 다루어진 것은 그가 목회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 관련 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필사 시기나 목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교육자 손승용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세 기사에는 손승용이 1902년 인천교회의 일을 맡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가 첫 목회를 시작한 시기는 1903년 11월 3일 황해도 연안읍교회에 파송되면서이다.¹⁸⁾ 손승용이 인천으로 가게 된 것은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 담임목사였던 존스(George Heber Jones, 조원시, 1867~1919)¹⁹⁾가 영화학당의 책임을 맡겨서였다. 존스 목사가 배재학당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시기에 손승용은 『협성회회보』²⁰⁾에 찬성인²¹⁾으로 입회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으니²²⁾ 이 둘의 친분은 배재학당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존스 목사가 작성한 1901년 연례보고서에는 손승용이 인천 영화학당의 교사로 있던 시기를 1900년 5월부터 1901년 5월까지로 기록하고 있어서²³⁾ 그가 처음 인천에 간 시기는 1900년이고, 교회 관련 업무를 보기 시작한 시기는 1902년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이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손승용에게 근대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부여된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존스 목사는 손승용에 대한 평가를 ‘훌륭한 교사고, 엄격한 훈육가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쪽으로

17) 『기독신보』 1928년 9월 19일 3면 「손목사별세」 기사.

18) 이은용,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화중앙교회, 2002, 145쪽.

19) 한국 이름은 조원시다. 미북 감리교의 선교사로 한국생활을 시작하여 배재학당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아펜젤러의 사역을 도왔고, 1892년 내리교회를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1903년까지 인천 강화지역에서 왕성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앞의 책, 521~523쪽.

20) 배재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가 1898년 1월에 창간한 주간지이다. 순한글, 4.6배판 2단계 4면으로 지면배정은 1면이 론설(論說), 2면은 내보(內報), 3면은 외보(外報), 4면은 회중잡보(會中雜報)와 광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1898년 4월 2일 제14호로 중간하고 4월 9일부터 한국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으로 개재 발간되었다.

21) 학생들로 구성된 협성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협성회에 찬성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찬조하며 찬성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22) 『협성회신보』 1898년 03월 26일 4면 1단.

23) 이성민·박철호, 『내리교회 110년사 I 초기역사(1885~190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내리교회, 1995, 142쪽

펼쳐진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극찬하였다. 손승용은 영화학당에 교사로 부임한 후 기독교를 통해 애국 충정과 개화 지식을 갖춘 강한 인재를 키워 내려 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였다. 당시 영화학당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유용한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던 터라 그가 지향한 교육이념과도 통했다.²⁴⁾ 이러한 합일점이 영화학당을 완전 자립 형태의 학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의 저력이 되었고, 1903년 영화학당은 근대식 정규학교로 인가받게 된다. 학교 재정의 실무와 학제의 개편에서도 손승용의 역할은 컸다.²⁵⁾

이렇듯 손승용은 교회 사역 이외에도 영화학교에서 교육자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1907년 7월 강화읍 잠두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된다. 그는 강화에서도 교회 내에서의 초등교육을 펼치는 데 힘을 쏟는다. 잠두 의숙에서 시작된 잠두합일학교는 1908년 12월에 사립제일합일학교로 개칭되었고, 이듬해 학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주도하고 이끈 인물이 손승용이다. 인천 영화학교의 경험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화 잠두합일학교는 그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되면서 강화도 사립학교의 시초가 된다.²⁶⁾

손승용은 또 여성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서 위량면 홍천동에 제일합일여학교도 설립한다.²⁷⁾ 이 결과 강화에서 5개였던 매일학교가 3년 만에 17개로 늘어나고, 교동에서도 2개였던 매일학교가 같은 기간 13개로 확대되었다.²⁸⁾ 이외에도 그가 이끈 사경회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문맹자나 부녀자에게 한글을 배우고 깨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⁹⁾ 손승용은 남녀 그리고 양반 천민의 신분 차별 없이 신앙과 교육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였다.³⁰⁾ 강화에서 교회와 신도 수가 늘어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데는 손승용이 주도하였던 매일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 그리고 사경회가 일정 부분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 강화에서 펼친 감리교 전파와 애국 계몽기의 교육은 그의 삶에서 이뤄낸 가장 큰 성과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도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손승용은 1910년 5월 강화에서 수원종로교회로 파송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나라 안의 암울한 분위기는 기독교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그는 순회목사로 수원지방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선교를 이어갔고, 인천과 강화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폐교하였던 삼일학교를 재건하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 결과로 1911년 1월 22일 삼일학당의 학칙을 보통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³¹⁾ 그는 기독교의 선교 못지않게 문명개화를 위한 교육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24) 이성민·박철호, 위의 책, 148쪽.

25)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위의 책, 537쪽.

26)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 설립 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24쪽.

27) 김형목, 위의 논문, 122~124쪽.

28)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위의 책, 538쪽.

29) 이덕주·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4, 166~170쪽; 이은용, 위의 책, 153~154쪽.

30) 손승용은 인천 웨슬리 교회(내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직 양반의 신분을 버리지 못한 자산을 회개하고 비로소 모든 사람을 형제라 부르게 되었다고 신앙고백을 한다. 황규진 홍중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서지방사』, 삼영인쇄사, 1998, 212~213쪽.

31) 김진형,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수원종로중앙교회, 2000, 74~86쪽, 116쪽.

열정을 쏟았다. 손승용에게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식은 근대식 교육을 하는 학교의 재건과 기독교인의 확대라는 양면으로 철저하게 실천되었다.

1911년 손승용은 다시 수원을 떠나 공주 제일교회의 제6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공주지역에서 순회 목사로 1919년까지 8년을 활동하였다.³²⁾ 인천과 강화에서의 활동은 근대식 교육을 위한 학교 건립과 학생 교육에 힘을 쓰는 구국 계몽에 주력하였다면, 수원에 이어 공주로 이어진 활동은 감리교의 부흥을 위해 사제의 본분에 더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19년은 3.1운동으로 인한 항일투쟁이 시작되어 교회의 일꾼과 신도들이 많이 피체되었던 때였다. 이 시기 그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려 하였고 감리교의 부흥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손승용의 노력으로 수원지역이 안정을 찾아가자 1919년 11월에 그는 서울지역의 창천과 서강 두 교회의 담임목사로 다시 파송된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60대의 고령에 접어들어 사역을 감당하기가 버거웠고, 1920년 서강교회 담임목사를 마지막으로 사제로서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인생의 말년까지 감리교의 목회자로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한 전도 활동으로 남은 인생을 바쳤다. 이후 손승용은 전남 함평으로 내려가 수양을 하다가 병을 얻어 1928년 7월 26일(음력) 74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승용은 기독교의 목자로서는 자신을 낮추고 교인 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사랑으로 성령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로 보였다. 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일에는 비교적 정확하고 단호하게 처신하였던 것 같다. 일단 교회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감리교 선교사업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교세가 확장되어 정규학교의 인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선교부로부터 독립하여 학교를 운영하려 하였다. 이는 근대교육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민족적 교육을 염두에 둔 결과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손승용 목사에 관한 기록은 여러 기독교 관련 자료에 파편화되어 있고 그의 인생 전반이 제대로 조망되지 못한 감이 있었다.³³⁾ 이 글도 또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학계에 소개하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 손승용의 생애를 모두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대 계몽기에 목사의 신분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로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 손승용에 관한 추후의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Ⅲ.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

1.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형태 및 필사 시기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크기는 가로 11cm × 세로 8cm로 되어있고, 세로 행으로 창가 가사가 적혀 있다. 처음 두 곡을 포함하여 창가집의 표지는 실전되어 전하지 않고, 식별되는 첫 곡은 낱장으로 떨어진 〈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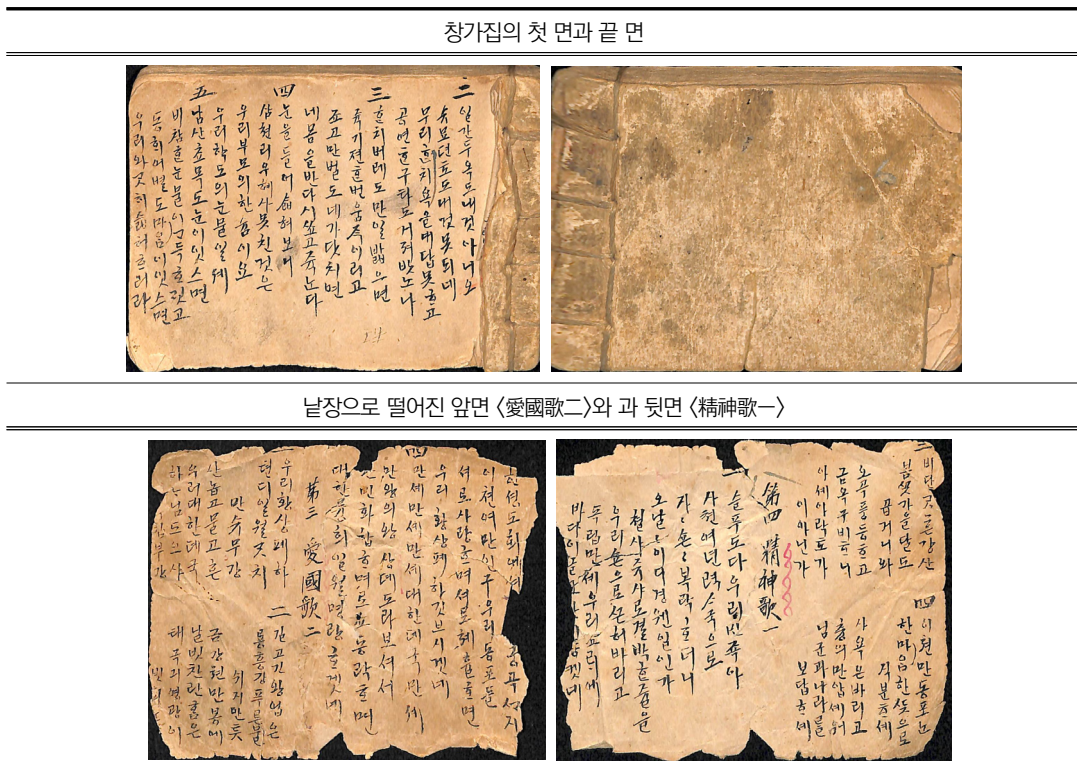
32) 『기독신보』 1928년 9월 19일 3면 「손목사별세」 기사.

33) 공주지역에서도 순회 목사를 하여서 그의 활동이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다. 전광현, 『공주제일교회팔십년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제일교회, 1985, 61~62쪽.

三 愛國歌二) 부터이다.³⁴⁾ 그 뒤로 〈第四 精神歌一〉의 2절부터는 우철로 묶여서 보관되어 있다.³⁵⁾

수록곡은 곡명 앞에 ‘第○○’식으로 번호가 매겨져서 〈第四十九 居鄉歌〉까지 47곡이 실려있고, 여기까지는 가는 붓글씨로 필사되었다. 이어서 번호가 달리지 않은 곡명으로 실린 8곡은 연필, 붉은 펜, 검은 펜 등으로 필사되었다. 따라서 소실된 앞부분을 포함하면 본래의 수록곡은 총 57곡이었으나, 현재 확인되는 곡은 총 55곡이다. 창가집의 필사 상태는 아래와 같다.

〈표 5〉『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붓글씨 부분



〈표 5〉에서 보듯이 붓글씨 부분은 한자로 곡명을 썼고, 가사는 아래아 모음을 사용하는 옛글 한글체를 사용한 반면, 〈표 6〉의 펜글씨 부분은 곡명을 한글 표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견 보기에 붓글씨와 펜글씨의 글씨체가 다르게 보여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붓글씨와 펜글씨, 혹은 연필 글씨는 같은 사람이 쓴다고 하여도 같은 글씨체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³⁶⁾ 하지만 손승용이 남긴 별도의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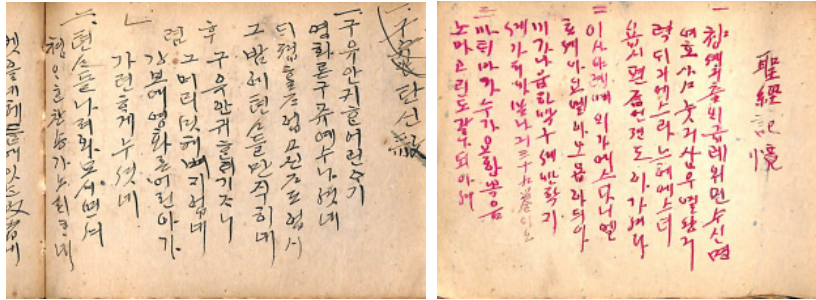
34) 실전된 2곡 가운데 하나는 〈第0 愛國歌一〉일 것이라 추측된다.

35)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원본은 필자가 직접 확인하였다(일시: 2021년 8월 3일, 장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손동옥 자택).

36) 동시대의 인물인 박창식(林昌植, 1892~1910)은 붓글씨로 『잡집』(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16200-000)을 필사하였고, 『창가휘집』(독립기념관 자료번호 3-016193-000)은 펜글씨와 연필로 필사하였다. 두 창가집을 비교하면 동일인의 필체가 다르

〈표 6〉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펜글씨 부분

〈구유탄신가〉와 〈성경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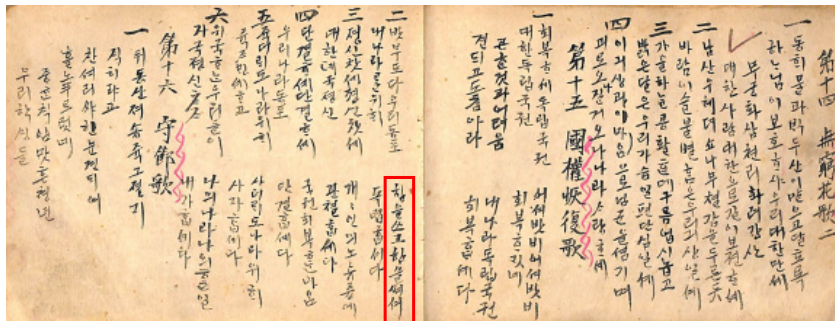
이 없어서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은 어렵다.³⁷⁾

앞서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연도를 알 수 있는 별도의 면이 없어서 필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수록곡을 분석하여 보면 어느 정도 필사 시기의 추정이 가능하다. 일단 창가집의 수록곡이 교육 계몽을 목적으로 한 창가가 다수 있으므로, 손승용이 영화학교, 잠두교회, 합일학교에서 재직한 1900~1913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록곡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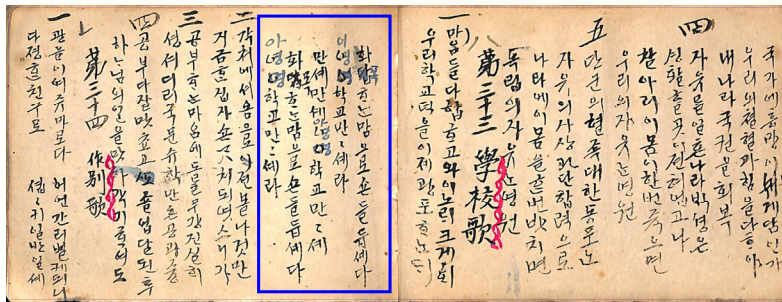
우선 필사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곡을 하나 제시한다. 아래 〈第三十三 學校歌〉는 붓글씨로 적힌 노래인데, 가사에 펜글씨로 수정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게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7) 안용환은 『독립과 건국을 이룩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도산 친필 '제14무궁화가2'를 중심으로-』(청미디어, 2016, 66~68쪽)에서 도산 안창호가 친필로 쓴 〈第十四 無窮花歌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저술에서 제시된 이미지는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第十四 無窮花歌二〉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종서로 남긴 '힘을 쓰고 힘을 써서'는 다음 곡인 〈第十五 國權恢復歌〉 2절 가사의 한 부분과 같았다. 아래에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사실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안창호, 또는 제3의 인물이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는 필사자에 대한 별도의 서지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손승용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손승용은 소장자이면서 동시에 필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창가집의 명칭을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라 앞서 명명하였다.



〈그림 1〉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학교가〉

그림 1의 〈학교가〉를 보면, 본래의 가사는 “○○학교”로 되어있던 것을 “아 영명학교”로 고친 부분이 있다. 아마도 영명학교의 교가를 염두에 두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명학교는 충남 공주에서 설립되었고 남녀학교가 있었다. 우리암(禹利岩, Rev. Frank Earl Cranton Williams, 1883~1962)이 설립한 남자를 위한 영명학교는 1906년 설립되었고, 영명여학교는 샤프 목사(Robert Arthur Sharp, 1872~1906)의 아내인 사에리시(史愛理施, Alice H. Sharp)가 1905년 설립한 명선여학교의 후신이다.³⁸⁾ 가사에 수정된 영명학교가 사실상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손승용이 공주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때가 1911년 이므로 지역 내에 있던 영명학교의 교가를 위해서 〈학교가〉의 가사를 수정하였다는 가설이 선다. 따라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붓글씨 부분은 늦어도 1911년 이전에 필사되었고, 펜글씨 부분은 1911년 이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필사 시기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수록곡은 1909년 7월 24일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과 국문판에 동시에 게재된 〈소년남자가〉이다. 노래 가사의 말미에 ‘韓人野球團用唱歌’라고도 적혀 있어서 게재 날짜 말고도 노래의 창작 시점이 가늠되는 곡이다. 이 〈소년남자가〉는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第七 少年歌〉로 일곱 번째에 실려있는 곡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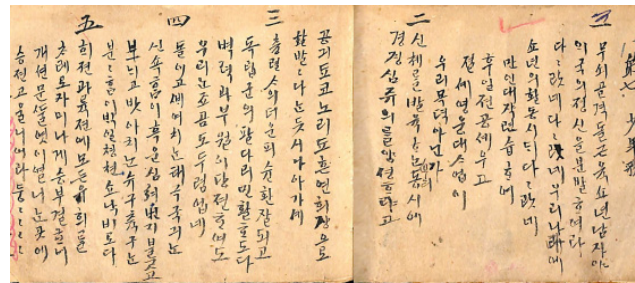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야구단이 결성된 시기가 1905년이라고는 하여도 야구 시합에 관한 보도기사는 『황성신문』 1906년 2월 7일자에 처음 게재되었다.³⁹⁾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인야구단이 생기면서 한인야구단용 창가로 〈소년남자가〉가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실린 시기는 1909년이다. 이 노래는 미주지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15년 9월 2일 3면 4단에 〈베이스볼 칠때에 쓸 노래〉로 실리고, 국내에서 『조선일보』 1934년 2월 14일자에도 실릴 정도로 애창되었다. 따라서 〈소년남자가〉의 게재 시기로 미루어 볼 때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필사 시기는 1909년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8) 영명여학교는 명설여학교로 불리다가 1906년 영명학교로 불렸다. 전광현, 『공주제일교회팔십년사』, 38~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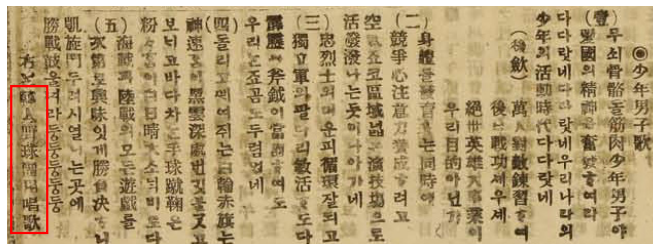
39) 한국에 야구를 도입한 인물은 선교사 필립 질레트(Gillette, Phillip L., 吉禮泰)로, 최초의 야구단은 1905년 결성된 YMCA 야구단이다. 김용현·신의연·김연수, 「조선 말기 야구의 도입과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관하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5/3,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910, 148~151쪽.

〈표 7〉〈소년가〉와 〈소년남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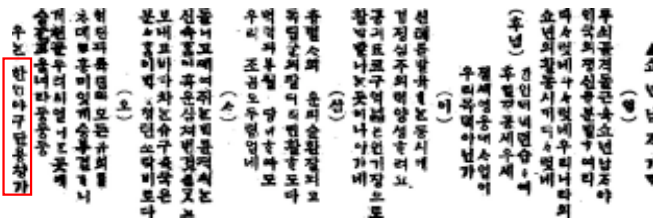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 〈소년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면 4단 〈少年男子歌〉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면 5단 〈소년남자가〉



또 하나의 곡을 살펴보자면, 〈第四十八 百萬名救援歌〉이다. 이 노래는 곡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09년부터 1910년에 일어났던 ‘백만명 구령운동’을 노래한 것이다. 이 운동은 본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1909년 9월 서울 남감리교 선교연회 후 개최된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에서 전도 표어를 “백만명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이 전도 운동은 일제에 의해 강점된 후 나라를 빼앗겨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⁰⁾ 그러므로 백만명 구령운동을 내용으로 한 창가가 수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필사는 1910년 이후까지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40) 김재성, 「한국 개혁신의 신앙의 형성과 본질 탐구」, 『국제신학』 17,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19~22쪽;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I』, 도서출판 kmc, 2005, 334~337쪽.

붓글씨 필사는 1909년경 시작하여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붓글씨를 마친 후 추가된 8곡이 각기 다른 필기구로 필사된 점과 기독교계 노래가 5곡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손승용은 1911년 공주제일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후 공주지역의 순회목사도 하면서 인생 말년을 종교인으로 가장 집중하여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교육 관련한 일보다는 목회자로 더 열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계 노래를 몇 곡 추가한 후에 창가의 필사를 멈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최종 완성 시기는 그가 공주에서 목회의 임무를 수행하던 1911년경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 따라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 처음 필사되기 시작한 시기는 손승용이 강화 잠두교회에 파송된 후로 추정된다. 그 무렵 강화에는 교육 계몽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양성하고자 한 ‘보창학교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고, 이 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어난 이동휘(李東揮, 1873~1935)가 있었다.⁴¹⁾ 이동휘는 강화 잠두교회에서 김우제 전도사에게 신앙고백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고,⁴²⁾ 손승용과는 독립협회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동휘는 국가의 중흥은 오직 교육에 있어서 민족운동이 곧 교육운동이란 인식으로 근대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보창학교의 정규과목은 역사, 지리, 영어, 일어, 산술, 한문, 물리, 체육, 화학, 도화, 체조 등이었고,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는 의무적으로 매일 군사훈련도 실시했다.⁴³⁾ 이는 이동휘의 군사적 계몽주의가 반영된 교과로, 보창학교 연합운동회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공격’이라는 종목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⁴⁴⁾ 당시 이동휘의 보창학교 운동은 강화사람에게 항일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계기로 작동하였다.⁴⁵⁾

이렇듯 강화에서는 문명개화를 위한 근대식 학교의 설립과 교육 계몽을 교회의 사역자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동휘의 몫이 실력 양성을 통한 구국과 독립운동에 보다 치중되었다면, 손승용의 몫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독실한 기독교인 확대에 보다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처음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 필사되기 시작한 시기는 1909년 이후이고, 현재 전해지는 상태로 마쳐진 시기는 1911년경으로 추정된다.⁴⁶⁾

2. 수록곡의 특징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수록곡은 총 57곡이나 현재 가사의 내용이 파악되는 곡은 총 55곡이다. 여기서는 수록곡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사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표에 실은 가사는 1절 또는 문맥에 따라 2~4문장 정도로 적었고, 후렴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기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이동휘나 그의 추종 인물들이 설립한 학교가 강화에 여럿 있었고 이 학교의 명칭은 모두 ○○면 보창학교라고 명명하였다. 반병률, 「이동휘와 韓末 民族運動」, 『한국사연구』 87, 한국사연구회, 1994, 168~170쪽.

42) 이은용, 『강화중앙교회100년사』, 130쪽.

43) 김성학, 「한말 강화지역 사립보창학교의 등장과 성장 - 민족과 기독교, 황실의 조우 -」, 『한국교육사학』 36, 2014.

44) 이기훈, 「강화도에서 이동휘의 계몽운동」, 『도서문화』 33,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2009, 277~281쪽.

45) 이덕주·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182~187쪽.

46) 창가집 전체의 면수는 97쪽이고, 가사는 67쪽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표 8〉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수록곡

곡명	가사 1절	후렴
第三 愛國歌二	우리황상폐하 텃디일월꺾치 만슈무강 산높고물고흔 우리 대한대국 하느님도오샤 독립부강	×
第四 精神歌一	슬푸도다우리민족아 사천여년력스국으로 자자손손복락 하더니 오늘날이디경웬일인가	철사주사로결박하 줄을 우리손으로쓴허바리고 독립만세우리쇼기릭에 바다이쓰고산아동켓네
第五 精神歌二	단군고조건국하옵신 자주동방우리대한국 사천여년력스국으로 오늘날이디경웬일인가	대한국동포우리민족아 우리의독립만만세토록 자유정신을진흥하여라 하느님압해주건흠쇼서
第六 愛國歌三	아세아동편에돌출하반도 면적이구만리인구이천만 심삼도각군 하니삼백륙십사 당당하대대국이분명하도다	×
第七 少年歌	무쇠골격돌근육소년남자야 인국의정신을분발하여라 다다랗네다다랗네우리나라에 소년의활동시되다다랗네	만인대작련습하여 후일전공세우고 절세영웅대스업이 우리목덕아닌가
第八 少年冒險猛進歌	눈을드러삼천라구을녀보니 금슈강산대한국내나라이오 승승하게자라는 우리소년들 이세국민자격이튼튼하도다 압길에서시험과장인되느것 조곰도사양말고달녀나가세 내팔독내힘을시험하느씩 태산이가부압고우스우리라	×
第九 大韓魂歌	화려하강산우리대한은 삼천리범위적지안도다 빅두산으로한라산산지 자연하경기그려놋도다	선조가임의여과못치고 우리도대한혼이되리니 사천년조국대한강토로 내집을내가보호하것네
第十 國旗歌	아세아동대한국은 하늘이슬히신내나라 태극조판하옵실씩 우리나라창업코 여천만세무궁토록 무 극으로견고하 문명현디빅일하에 영원토록빛노네	×
第十一 兵式行步歌	장하도다우리학도병식행보가 나파류의군인보다질것업 깃네 우리장관호령쇼리하번부를씩 압홀보고나아감이엄 숙하도다 공부하여지식얻어무기만들고 운동으로힘을얻 어군인되여서 우리적조우리힘을모다합하여 나라일을하 번힘써도아보깃네	×
第十二 父母恩德歌	산아산아눔흔산아 내아모리눔다흔들 우리부모날길으신 늙흔은덕밋칠쇼냐 눔고눔흔 부모은덕 어이하면보답하리	×
第十三 無窮花歌一	승자신손천만여년우리 황실이요 산고슈려동반도는우리 본국일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름대한으로기리보전하세
第十四 無窮花歌二	동희물과빅두산이말으고달토록 하느님이보호하사우리대한만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름대한으로길이보전하세
第十五 國權恢復歌	회복하세독립국권 어셔빳비어셔빳비 대한독립국권 회복하것네	곤하것과어려움 내나라독립국권 견디고도춤이라 회복출세다
第十六 守節歌	뒤동산저용죽그절기 식히랴고 찬서리싸흔눈견디여 홀노푸르렛네	중하칙임맞흔 청년 우리학식들 곤하고어려움춤아서 목덕을달하네
第十七 勸學歌	세월이류슈하하여 광음이나를위하야 살고치지나네 지체기만무일세	×
第十八 前進歌一	참깃븐 음성으로노리하며 직무에전진전진행하세다 각과를전무하되락심말고 하깃다하세우리직무를다	전진전진전진깃븐마음과 전진전진전진깃븐노리 각과 를전무하되락심말고 하깃다하세우리직무를다

곡명	가사 1절	후렴
第十九 前進歌二	이천만우리형제동포들이 오백년자든눈을밝게쓰고서 익국이자랄노슈에삭여서 죽을스자압홀세고전진히	×
第二十 前進歌三	대한제국국민청년학생들이 문화경정호는오늘날일세 혁구종신우리데일목덕이니 썩틀 일치말고속히나가세	나아갑세다나아갑세다 문명풍조썩라나아갑세다 나아 갑세다나아갑세다 밝고빛는길노먼져나가세
第二十一 勇進歌	묘호고묘호다우리대한은 삼천리강산이묘호도다 디덕로성군은우리나라요 충효겸전훈은우리학도-르세	×
第二十二 行步歌	산높고물물은우리동반도는 사천여년사라오우 우리중 사시괴후항상도코화평호데 우리그중에서호흡호구나	나아가누나나아가누가 우리학생들이나아가누나
第二十三 學徒歌一	학도야학도야청년학도야 벽상에괘종을드러보시오 호소릭두소릭가고뭇오니 인성의빅년가기주마고도다	×
第二十四 學徒歌二	학도야학도야저괴청산바라보게 고목은썩어지고영목은쇼 성호네	×
第二十五 學徒歌三	대한청년학생들이 동포형제사랑호고 우리들의일편단심 독립호기뵈약하세 화려하다 우리강산 사랑홀다우리동포 즈나끼나닛지말고 길히보전호옵세다	학도야학도야우리주의는 도덕을비호며학문넓혀서 삼 천리강산에도흔강토를 우리학생들이보전호세다
第二十六 結義歌	귀호다우리마음 서로잇는스랑 쫓호흔즈서로우이 하느 우와호히	×
第二十七 獨立歌	아주동방화려반도는 개국된지사천년독립국일세	×
第二十八 學生歌	나를스랑호고길으시논이는 우리부모선심베키업고나 교육호은혜김히싱각호니 학문따글마음즈연칭기네	동서대디예현능준걸이 모도학문으로쫓차나오고 상하 천지에국가승쇠가 전혀교육상에관계잇도다
第二十九 希望歌	독립호올도호희망 깃버호게호도다 사천여년오된나라 더 욱더욱시로워 동포들이춤로써 국권비양어서호샤 호리 로다호리로다 우리나라독립	×
第三十 世界地理歌	창방한우주간에 지구성이달녜쇼 그안에잇는만물 한량홀 슈업도다 슈륙이난호이니 룽주오양분명코 그우에잇는것 은 동식광물이로다	×
第三十一 望鄉歌	부모형제리별호고 타관으로리직되니 섭섭호맘향호는곳 나의본향뿐이로다	×
第三十二 自由歌	한반도강산우리나라는 단군의유업완원호고나 당당호국민이천만으로 룽대주상에활동	하느님이쥬신자유를 대한사람모도가젓네 독립의사상과익국성으로 우리의자유를공고
第三十三 學校歌	마음들다합호고와이노릭크게히 우리학교덕을이제광포호는디	화목호는맘으로손들습세라 아영명학교만만세라 만세 만세아영명학교만만세 화목호는맘으로손들습세다 아 영명학교만만세라
第三十四 作別歌	광음이여주마로다 다정호친구로 어언간리별케되니 섭섭 키일만일세	당신의손목늦사와 평안이가게시오 모쥬록뵈은밧으나 쫓다시뵈옵시다
第三十五 大韓軍歌	태극도관호은후에 히우동방습겨세라 아태조창업호사 열 성지덕누리쫓다 천하만국너른세계 광무일월놓히쫓다 우 리황상성덕으로 여민안락호여세라(이하 생략)	×

곡명	가사 1절	후렴
第三十六 救世軍歌	우리대장예수님전능하시니 원수마귀마고접전히보세 큰승전홀떡씩지 세나가서 마귀권세를 멸하세	압호로압호로다 흠씩나가세 큰승전홀떡씩지 압해나가 세 마귀권세를 멸하세
第三十七 耶穌延長慶祝歌	깃분쇼릭를듯세 산너머오게 올니노곡도 세상을돈다 후렵에보는 것이 세상쑈씩지 크신영광돌니네	깃버호고찬미하며 기다리든왕영접히 하늘에탄사들 구치 텃부레물하레하네
第三十八 耶穌延長慶祝歌二	짜윳성에잡든이들끼여 몽죤이또씨우세 상고부터허락한 미새아 강림하니찬송하라	그일흠예수요 구주요임마누엘 세상다이끼니 그일흠예수르세 죄인다구원하니 그일흠예수르세
第三十九 耶穌延長慶祝歌三	우리들찬송 흠은 크신왕위 흠일세 베타험마구간에 오날밤 에 셋네	영광을돌려 깃분영광을돌려보시오 우리왕예수 높혀찬 송하오
第四十 耶穌延長慶祝歌四	구유에누인아기와 돌너선우머보라 이상호고신괴하다 그 곳일흠성다르세	주탄일밤별빛아떡 사랑으로경비하오 구세주하느님씩 서 세상에강림하소
第四十一 耶穌傳道歌	적은손예수일하며 적은밤그일형히 예수말습귀로듯고 내 입술잔미하네	주위호고주위하세 내가깃분되깃네 주위호고주위하세 날위히몸바쳐네
第四十二 皇上誕長慶祝歌	동방기국사년이빅칠년중에 우리황상폐하탄싱하시니 열성도의흠은대덕무궁하샤 우리국민의게조베프시네	대한국민들이우리황상탄싱 깃분으로모혀경축하세다
第四十三 恩德布世歌	살릴논이옴산과 인도산호섬과 아푸릭더운니에 금모릭쉴 닌것 강과산과날흔들 스람산데미다 죄의속박푸르라 우리 를부르네	×
第四十四 教育歌	어화우리학도들아 이니말습들어보쇼 대한스람대한으로 억천만년기리보전 군민공락합심하야 주주독립확고로다 우리황상폐하샤 국민교육확장하샤 공사학교수만일세(중 략) 보답하세 보답하세 황상은덕 보답하세 만세만세 만만 세요 대황제폐하 만만세라	×
第四十五 忠節歌	어화우리학도들아 이니말습드러보쇼 대한동포합심기초 민충정의공뢰로다 나라위히죽는 죽은 영광중에데일일세 영성일세영성일세 민충정공영성일세 빛나도다빛나도다 충절준이빛나도다(이하 생략)	×
第四十六 運動歌	대한국만세에부강기업은 국민을교육흠에전혀잇도다 우러를 덕을다고지혜갈너서 문명의전도자가되어보세다 (이하 생략)	×
第四十七 勸勉歌	류수고치색르세월 흥번가면오지안네 어느썩에봄이가고 하사월이도라와나 엇그적계청년들도 공도인간씩발일세 드러보쇼우리학도 니말습을드러보쇼(이하 생략)	×
第四十八 百萬名救援歌	삼천여리강산우리대한국에 죄에썩진동포가련호고나 그리스도왕의봉명스신된조 빅만명구하려나아갑세다	나아갑세다나아갑세다 빅만명구하려나아갑세다
第四十九 居鄉歌	오황상데전능하샤 독일무이하시도다 만유물품다너지고 회귀인싱너졌도다 신령하다사람이여 텃성턴리타고나서 오륜삼간불헛스니 그런고로회귀로다(이하 생략)	×
곡명미상 (탄신가들)	탄신기를원세상에흔드러서 나라마다접고○○○○○ 깃분소식참할○○○○○니 탄신기를원세상에흔드러	오날탄신기를흔드러 오날깃분탄신말하라 깃분탄신탄 신탄신 광활한세계압하○
학도가	나를가라치고기르시논이노 우리부모형성싱맛끼업도따 우리모도학생들 여기잇슈니 우리흔변○○○여보셔다우 리도 흘 것은 이것이로다	우리부모나를가를제엇더하며 우리선싱열심으로가라 치실제 우리열심말습बाट다서 순종하며일치월장흥세다

곡명	가사 1절	후렴
漂依	山谷間에 흐르는 물은 물가에 저기안즌 漂母 방망이 들고 이웃저웃 蹠蹠에 흐도 밧뿌다 溪山을 넘네 (이하 생략)	×
곡명미상 (주왕을 김빠히)	주왕을 김빠히 내의왕 겹벽히 찬미로 감수히 연워이득니히 덕 음을 들고 소위 뉘히 우리다시 김벼히 세	×
聖經記憶	창세기 출이굽레 위민수 신명 여호사사 롯기삼우열왕기 력디기에 스라느헤에 스며 읊시편 즘언전 도아가셔라	×
聖經歌	창세 출이굽 뢰의기 민수 신명 요셔아 스스기로 독살 무리 이상하리 열왕기 상하역지상下	×
구유안탄신歌	구유안귀 혼 어린 아기 영화론 구주 예수나셨네 덕 접출 죽 업고 신조도 업시 그밤에 떤스들 만직하네	구유안귀 혼 이기 주니 그머리 밧해 버지 업네 강보에 영화론 어린 아가 가련히 계누셨네
탄신가	하느님이 주실 것 우리 간 곳마다 가장즐거운 직분아 모던지 알 것 사랑소망 김뽀의 힘 빳이 되어서 혼히 모히느 그들 불히기 원하네	하느님 우리로써 빳성의 벗음이 영혼의 그들을 힘써서 불 히네

우선 같은 곡명으로 2곡 이상이 수록된 곡은 애국가 3곡(1곡은 미상), 정신가 2곡, 무궁화가 2곡, 학도가 4곡, 예수탄신가 6곡 등이다. 수록곡의 순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르지는 않으나 〈第三十六 救世軍歌〉부터는 기독교계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다.

수록곡의 가사에 들어있는 핵심 어휘를 꼽아보면, ‘단군’, ‘사천년 조국’, ‘대한제국’,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등이 국가를 상징하고, 이러한 어휘를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묘사되고 있었다. 문장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독립의 사상’, ‘애국성’이 강조되면서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포’, ‘이천만 형제’, ‘청년’, ‘학도’로 불리는, 즉 ‘우리’가 공부하여 지식을 얻고 또 운동하여 힘을 얻어 나라 일에 힘쓰자는 교육 계몽의 노래가 많았다. 기독교계의 노래는 ‘예수님’, ‘찬송’ 같은 어휘로 예수 탄생을 노래하고 있으며, 다음에 항상 탄신을 축하하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앙심 못지않은 충성심도 창가 가창의 덕목으로 삼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래서 수록곡에 담긴 주요 주제는 크게 나라 사랑, 독립 정신 고취, 학업 권장, 예수 찬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애국성을 강조하여 노래한다고 하여도 독립기를 높이 날리며 대한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화려한 강산을 지닌 우리의 국토를 찬양하면서도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몸을 바치자고 노래하고 있다. 또 충군 애국을 우리의 직무로 삼아 단결하여 국권을 회복하자고 선동하고 있으며, 나라의 뿌리가 우리 소년의 공부라고 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수록된 창가는 나라 사랑의 마음과 독립 염원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 되며, 예수를 찬양하는 마음과 황제를 포함한 대한국을 지키고 받드는 마음도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 되고 있었다. 손승용이 일생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한 ‘기독교 안에서 이루는 계몽 교육’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노랫말에서 모두 확인이 된다. 이상 수록곡의 면모를 살펴본 결과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수록된 곡은 나라 사랑과 독립을 염원하는 1910년대의 ‘애국창가’로 분류할 수 있다.⁴⁷⁾

3.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가치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애국창가의 가사만 수록한 것이지만, 이 시기 악보와 함께 애국창가를 수록한 창가집이 두 권 전하고 있다. 하나는 1914년 북만주 광성중학교에서 발행한 『최신창가집 (부악전)』이고, 다른 하나는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애국창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창가집이 발행된 지역과 배경이 모두 손승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손승용은 제물포교회(내리교회)와 강화 잠두교회에서 모두 사역을 하였고, 창가집 필사의 시작은 강화 잠두교회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1900년대 강화에서는 손승용이 잠두교회에 파송되기 전부터 민족주의자 이동휘(李東輝, 1873~1935)가 보창학교를 설립하여 대중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동휘는 1905년 강화진위대대장을 사임한 후 대중 강연으로 지역을 순행하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모았고, 교육과 기독교 전파를 통하여 국민 계몽을 선도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권 회복을 꾀하고 있었다.⁴⁸⁾

이러한 강화의 분위기는 손승용이 영화학교에서 실천하였던 근대식의 계몽 교육과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설립 인가나 건물의 중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손승용이 교장을 할 때는 근대 교육을 위한 교과목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보창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창가 과목에 주목하였던 것이고, 창가 교육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 손승용을 목사뿐 아니라 애국 계몽 시기의 교육자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찬송가 채록보다는 교육 계몽을 위한 창가를 채록하여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민회와 서북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던 이동휘는 북간도로 망명하여 동포사회를 단합 조직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다.⁴⁹⁾ 그리고 길림성 연결현 국자가 소영자에 민족학교로 세워진 광성학교를 광성중학교로 개편하고 교장직을 맡는데, 『최신창가집(부악전)』은 바로 이 광성중학교에서 애국창가를 모아 만든 음악교재이다.⁵⁰⁾

한편 또 다른 지역에서 애국창가를 모아 만들어진 『애국창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등사본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한인들의 첫 미주지역 이민지가 바로 하와이였다. 한인의 하와이 이주는 북감리회 서지방을 관할 하던 존스 목사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03년 1월 13일 첫 이민단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약 7,400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⁵¹⁾

감리교회는 하와이에 이주한 감리교 신도를 이끌고 이민단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사 홍승하(洪承河, 1863~1918)를 파견한다. 홍승하는 한국 최초의 파송 목회자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약해져서 다음 해에 귀국하게 되고 그 이후 1905년 6월 강화 잠두교회, 1906년 7월 내리교회, 1907년 6월 공주지방

47)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 2019, 163~169쪽.

48) 반병률, 「李東輝와 韓末 民族運動」, 160~163, 168~170쪽.

49) 반병률, 위의 논문, 184쪽.

50)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XVI) 일본 篇④』 해제, 21~23쪽.

51) 이덕희, 「초기 하와이 한인들에 대한 견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184쪽.

순회 목사, 1912년 수원읍교회(수원 종로교회) 등에서 본인의 사역 임무를 이어 간다.⁵²⁾ 그런데 홍승하가 사역한 교회는 모두 손승용이 파송되었던 교회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대부분 홍승하의 후임으로 손승용이 파송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 아래에 제공한다.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가 손승용이고, 뒷줄 좌측 끝이 홍승하이다.



〈그림 2〉 1906년 인천지방 본처 전도사들 모습⁵³⁾

위 사진은 손승용이 강화로 파송되기 전인 1906년 사진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두 사람은 인천 서지방의 전도사와 목사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였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교의 과정에서 남녀와 신분의 차별을 넘었고 문명개화를 위한 근대식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손승용에게 한국 최초의 파견 선교사였던 홍승하의 행보는 적잖은 자극이 되었을 것 같다.⁵⁴⁾

그런데 홍승하가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그 자리를 대신하여 파송된 선교사는 잠두교회에서 사역 중이던 김우제(金宇濟)였다. 김우제는 배재학당에서 수학하여 한학과 신교육에 모두 학식을 갖춘 인재로 감리교 내에서 인정을 받았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화에서 이동휘를 전도하여 기독교 안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 바로 그의 공이었다.⁵⁵⁾

이렇듯 손승용의 주변에는 이동휘, 김우제, 홍승하 같은 교육과 신앙을 하나의 임무로 실천한 인물이 연관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즉, 국내에서 불렀던 노래, 혹은 불리기를 바랐던 노래는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수록되었고, 이 노래들은 다시 이동휘가 민족교육을 실현한 북간도, 김우제와 홍승하가 해외 선교를 실현한 하와이로도 옮겨가서 한민족 사이에서 서로 공유되는 노래로 자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모여 『최신창가집(부악전)』

52) 이택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 기독교와 역사』 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85~292쪽;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139~145쪽.

53) 본문의 이미지는 손승용이 제공한 것이고, 같은 사진이 『강화기독교 100년사』 157쪽에도 실려있다.

54) 손승용도 하와이로 떠날 준비를 하였으나, 함께 살던 처제가 심한 병에 걸려서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2021년 8월 3일 구의동 자택에서 손동욱 제보)

55) 이은용, 『강화중앙교회 100』, 81~83쪽.

과 『애국창가』라는 대표적인 애국창가집으로 발행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연성에서 시사되는 바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각 창가집의 수록곡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 9〉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 · 『최신창가집(부악전)』 · 『애국창가』의 수록곡 비교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1910 전후)	『최신창가집(부악전)』(1914)	『애국창가』(1916)
애국가2	애국(15)	
정신가1	정신(82)	정신가(3)
정신가2	애국(78)	
소년가	야구(28)	소년남자가(11)
소년모험맹진가	모험맹진가(83)	모험맹진(14)
대한훈가	대한훈(17)	대한훈(38)
국기가	국기가(3)	국과가(8)
병식행보가	병식행보(28)	
부모은덕가	부모은덕(52)	부모은덕가(17)
무궁화가2	국가(1)	
수절가	수절(7)	슈절가(16)
권학가	권학(9)	권학가(61)
전진가1	전진(29)	
전진가3	학생전진(55)	
용진가		애국가(19)
행보가	학생애국(146)	애국가(15)
학도가1	석음(141)	
학도가2	학도(42)	
학도가3	학도(47)	
독립가	독립(45)	독립가(29)
학생가	권학(27)	
희망가	희망(33)	희망가(24)
세계지리가	세계지리(119)	세계디리가(13)
망향가	망향(46)	망향가(47)
자유가	자유(20)	자유가(21)
작별가	작별(58)	작별가(20)
구세군가		군병가(53)
운동가	운동(51)	운동가(61)
표의	표의(32)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1910 전후)	『최신창가집(부악전)』(1914)	『애국창가』(1916)
성경기억		정책명기억가(65)
30곡/55곡	27곡/152곡	19곡/77곡

(필자 주: ()는 수록곡 쪽 번호, / 이하는 각 창가집의 총 수록곡)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30곡이 『최신창가집(부악전)』나 『애국창가』에도 실려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정신가1〉, 〈소년가〉, 〈소년모험맹징가〉, 〈대한혼〉, 〈국기가〉, 〈부모은덕가〉, 〈무궁화가2〉, 〈수절가〉, 〈권학가〉, 〈독립가〉, 〈희망가〉, 〈세계지리가〉, 〈망향가〉, 〈자유가〉, 〈작별가〉, 〈운동가〉 등 16곡은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의 수록곡과 같다. 나머지 14곡은 각각 『최신창가집(부악전)』 또는 『애국창가』에 실린 곡과 동일하다.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의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아래는 창가집 3종에 모두 함께 실려 있는 〈희망가〉이다.

〈표 10〉 〈희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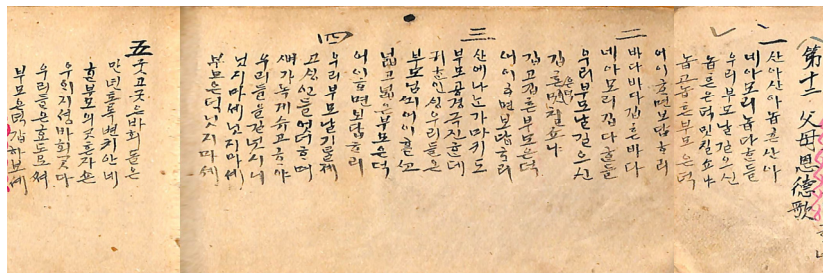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희망가〉	
『최신창가집(부악전)』의 〈희망〉	『애국창가』의 〈희망가〉

〈표 10〉에서 보듯이 〈희망가〉는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사장조 3/4박자의 곡으로, 선율 진행과 리듬의 진행이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에서 모두 같게 실려있다. 따라서 가사만 있는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희망가〉도 곡조를 붙여서 가창이 가능해질 수 있다. 〈희망가〉의 곡조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⁵⁶⁾로 불리는 찬송가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국창가에서 찬송가의 곡조가 차용되는 것은 당시의 창가가 가졌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⁵⁷⁾

다음으로 3종에 모두 실린 〈부모은덕가〉를 보면, 곡조가 만들어지면서 『최신창가집(부악전)』에는 바장조, 『애국창가』에는 사장조로 기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4박자의 선율 진행과 리듬의 진행, 그리고 가사의 내용은 모두 같게 실려있다. 이상의 악보는 아래와 같다.

〈표 11〉 〈부모은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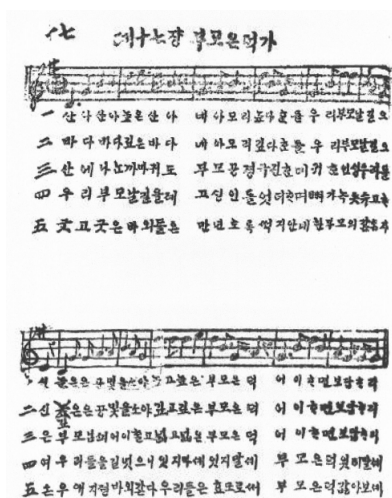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부모은덕가〉



『최신창가집(부악전)』의 〈부모은덕〉



『애국창가』의 〈부모은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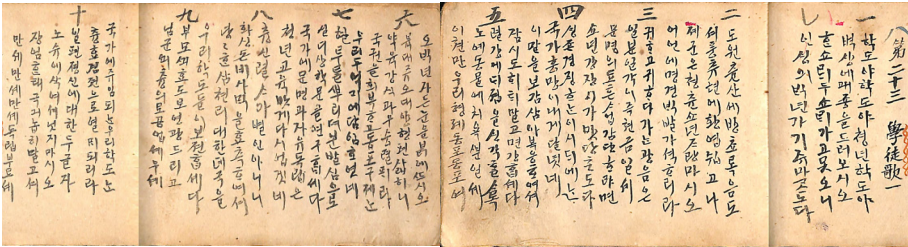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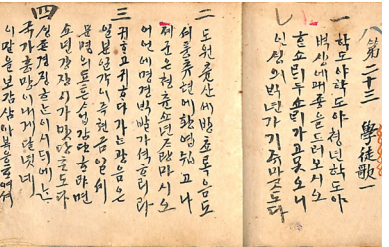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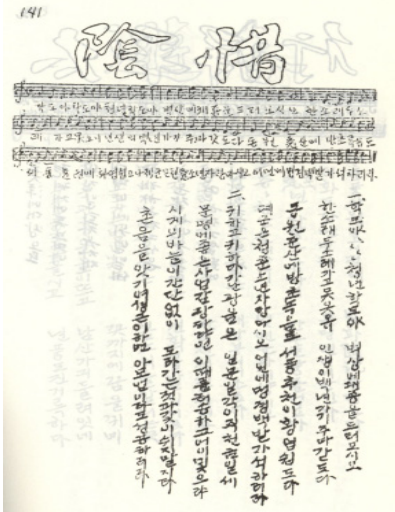
56) 새찬송가 19장

57) 반혜성, 앞의 논문, 163~170쪽.

〈표 11〉의 악보는 창가집을 놓고 베끼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창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보를 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조표가 다르게 기보 되어있지만 같은 곡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학도가1〉은 『최신창가집(부악전)』에 〈석음〉과 〈학도〉로 두 번 실려 있는데, 3절까지만 같은 가사로 실려있고 뒷부분은 가사가 다르다. 한 곡씩 살펴보면, 『최신창가집(부악전)』의 〈석음〉은 당시 국내에서 발행된 김인식(金仁湜, 1885~1962)의 『(교과적용)보통창가집』(1911)⁵⁸⁾에 실린 〈석음〉과도 같다. 우선 〈학도가1〉과 〈석음〉의 악보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 〈학도가1〉과 〈석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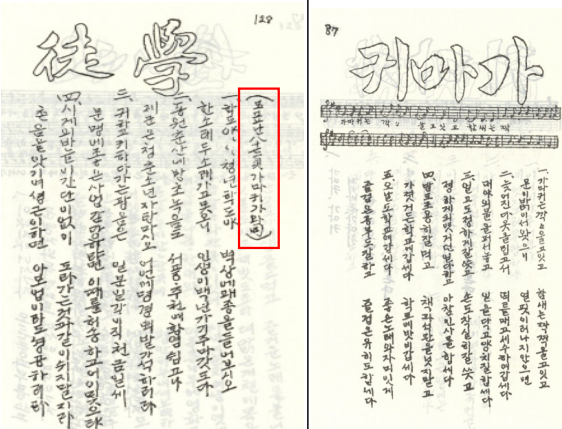
『손승용 수진본 창가』의 〈학도가1〉	『(교과적용)보통창가집』의 〈석음〉
	
『최신창가집(부악전)』의 〈석음〉	『(교과적용)보통창가집』의 〈석음〉
	

58) 김인식(金仁湜, 1885~1962)이 만든 음악교재용의 창가집이다. 초판 발행은 1911년이고, 본고에서 참고한 것은 1917년판이다. 내용은 동일하다. 59쪽에 31편의 창가가 수록되었다. 민경찬, 「자료 : 김인식의 〈교과적용보통창가집〉」,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7, 201~270쪽. 김은하, 「김인식의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원전연구」, 『음악과 문화』 27, 세계음악학회, 2012.

〈표 12〉에서 보듯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학도가1〉은 6·5 6·5 6·5 6·5음절이 1절이 되어 총 10절로 되어있고, 1절과 2절이 〈석음〉의 1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학도가1〉과 〈석음〉은 곡명은 다르나 같은 곡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신창가집(부악전)』의 〈학도〉는 가사만 적혀 있고 “보표는 八十七頁 가마귀가와 同”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을 『최신창가집(부악전)』에 실린 〈가마귀〉의 보표, 즉 곡조를 차용해서 노래를 완성하라는 말이다. 〈가마귀가〉의 곡조는 오오노 우메가와(多梅稚)가 작곡한 〈철도창가〉의 곡조여서 역시 가사를 붙여서 완성할 수 있다. 이렇듯 가사만 전하는 창가일지라도 곡조가 전하는 창가와 비교를 통해서 가창이 가능한 곡으로 완성할 수 있다. 아래는 『최신창가집(부악전)』의 〈학도〉를 악보화한 것이다.

〈표 13〉 『최신창가집(부악전)』의 〈학도〉와 〈가마귀〉

〈학도〉와 〈가마귀〉	곡조를 붙인 〈학도〉
	학도 (學徒)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최신창가집(부악전)』의 〈학도〉와 〈석음〉은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학도가1〉 가사를 3절까지만 가져다가 쓰고 곡조는 다르게 되어있지만, 이 3곡은 가사를 놓고 볼 때는 같은 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가창 문화가 곡조보다는 가사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에 곡조를 붙이는 것은 가창자, 혹은 악보집을 만든 편집자 몫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애국창가는 이렇게 가사는 같으나 다른 곡조로 불리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가사가 다른 곡이 같은 곡조를 차용해 불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창가 가사만을 수록한 것이라 곡조 파악은 어려우나 악보가 있는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를 비교 분석하면 본래 가창 되었을 곡조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현상을 바꾸어 보자면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는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수록곡에 곡조만 붙이면 창가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승용의 목회 활동에 따른 지역과 인물, 그리고 수록곡을 비교해본 결과,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국권의 회복과 자유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를 실었고, 실력과 힘을 키워 나라를 위해 튼튼한 몸을 바치라는 투쟁 의지를 고양 시키는 노래를 실고 있다. 국권 피탈의 과정을 바라보며 종교인이면서 교육자로서 손승용이 전달하고자 정신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온전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필사본 애국창가집 중에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910년대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라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본고는 애국 계몽기에 민족교육자로 활동한 손승용(孫承鏞, 1855~1928)과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우선 손승용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손승용은 독립신문사의 기사를 지낸 후 감리교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이바지하였던 애국 계몽기의 교육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목사의 신분으로 영면하였지만, 언론인이면서 교육자, 그리고 종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둘째,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필사 시기는 〈소년가〉, 〈학교가〉 〈백만명구원가〉 등 수록곡의 면모를 통해 1909년에 필사를 시작하여 1911년경 최종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손승용이 강화에서 잠두교회의 목사와 잠두합일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시기에 필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동휘가 일으킨 구국 계몽의 교육 활동과 연관하다고 보았다.

셋째,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일제의 강제병합 직전부터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불렸던 창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였다. 그래서 수록곡에 담긴 주요 주제는 나라 사랑, 독립 정신 고취, 학업 권장, 예수 찬양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손승용이 일생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한 ‘기독교 안에서 이루는 계몽 교육’이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노랫말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넷째,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동휘, 김우제, 홍승하 같은 교육과 신앙을 하나의 임무로 실천한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국외로 이어짐에 따라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의 수록곡은 북간도의 『최신창가집(부약전)』과 하와이의 『애국창가』에도 담길 수 있었다고 보았다.

교회를 이끌면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 교육에 오랜 시간 헌신하였던 손승용의 생애는 신앙과 교육은 분리되지 않는 이념이었다. 손승용은 국권이 위협받던 시대적 위기감에서 애국의 정신을 강조하는 개화사상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신앙의 힘을 보태 스러져가는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손승용의 신념을 표현한 창가가 바로 1910년대를 전후하여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창가

집은 국외에서 발행된 『최신창가집(부악전)』과 『애국창가』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필사본 애국창가집 중에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창가집을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이라 평가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경인 일보 특별 취재팀, 『인천 인물 100인』, 다인아트, 2009.
- 김진형,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수원종로중앙교회, 2000.
- 민경찬, 『한국 근·현대예술사 서술을 위한 기초연구-해제집①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7.
- 안용환, 『독립과 건국을 이룩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도산 친필 ‘제14무궁화가二’를 중심으로-』, 청미디어, 2016.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도서출판 kmc, 2005.
- 『尹致昊日記 七 한국사료총서 제19집』, 국사편찬위원회, 1988.
- 이덕주·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4.
- 이성민·박철호, 『내리교회 110년사 I 초기역사(1885~190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내리교회, 1995.
- 이은용,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화중앙교회, 2002.
- 전광현, 『공주제일교회팔십년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제일교회, 1985.
- 정진식, 『인물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5.
- 황규진 홍종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서지방사』, 삼영인쇄사, 1998.
-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獨立運動歌謠-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한국국악학회, 2008.
- _____, 「1910년대 국외 ‘애국창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하와이판 『애국창가』(1916)를 중심으로」, 『동양학』 78,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 김성학, 「한말 강화지역 사립보통학교의 등장과 성장-민족과 기독교, 황실의 조우-」, 『한국교육사학』 36, 2014.
- 김용현·신의연·김연수, 「조선 말기 야구의 도입과 강건한 기독교주의에 관하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5/3,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910.
- 김은하, 「김인식의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원전연구」, 『음악과 문화』 27, 세계음악학회, 2012.
- 김재성, 「한국 개혁주의 신앙의 형성과 본질 탐구」, 『국제신학』 17,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민경찬, 「자료 : 김인식의 〈교과적용보통창가집〉」,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7.

박진태, 「甲午改革期(甲午改革期) 국유지조사의 성격 : 驛土調査過程을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12, 1997.

반병률, 「李東輝와 韓末 民族運動」, 『한국사연구』 87, 한국사연구회, 1994.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 2019.

안용환, 『독립과 건국을 이룩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도산 친필 ‘제14무궁화가二’를 중심으로-』, 청미디어, 2016.

이기훈, 「강화도에서 이동휘의 계몽운동」, 『도서문화』 33,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9.

이덕희, 「초기 하와이 한인들에 대한 견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 기독교와 역사』 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이방원, 「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성민 · 박철호, 『내리교회 110년사 I 초기역사(1885~1903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내리교회, 1995.

채백,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6,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 이 논문은 2021년 5월 27일에 투고되어,
2021년 6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Ban, Hyesung*

This article looks into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which has been found from the estates of Son Seung-yong (孫承鏞, 1855~1928). Prior to the in-depth analysis on the songbook, activities throughout Son Seung-yong's life had been addressed. From such, this paper could reveal that Son Seung-yong served as a Methodist minister, after being a journalist for the Independence Newspaper,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schools for modern education. Son Seung-yong can be assessed to be a journalist, an educator and at the same time a religious person.

The timing of transcription had been estimated through analysis on the songs listed in the songbook. Son Seung-yong started the transcription around 1909 when he was at the Jamduhap'il school in Ganghwa, which was completed around 1911 when Son Seung-yong was at Gongjujeil church. The lyrics of the songs listed in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indicated clear characteristics of a patriotic songbook, as it reflected the sentiments of the time which was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enlightenment and civilization of the people.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 objectively demonstrates the Changgas that were sung around schools or churches before the forced annexation.

This paper also addressed the possibilities of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being referenced as drafts for two patriotic songbooks with musical notes, which are, 『Choisinchanggajip』 (1914) of Gwangsung middle school at Bukgan-do and 『Aegukchangga』 (1916) of Honolulu Hawaii. Despite being transcribed by an individual,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can be assessed to be the record of an aspiration of the time toward patriotism and independence, which arose from watching the progress of national sovereignty being forcefully taken away.

[Keywords] 『Son Seung-yong Sujinbon Changgajip』, Son Seung-yong, Changga, Patriotic Songs, Independence Newspaper, Methodist Church, Lee Dong-hwi, Yonghwa school, Jamduhap'il school, 『Choisinchanggajip(Buakjeon)』, 『Aegukchangga』

*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